



봉사의 기쁨

유진 피 털 서울 선교부장

우리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사랑의 원리를 실천함으로써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은 단지 말로만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는 것으로 그치는게 아닙니다. 사랑이란 기꺼이 봉사하며, 책임을 받아들여 남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생활에서 볼 때에도 열성을 다해 사업과 교회 일을 행함으로써 기쁨을 맛보았으며, 더구나 사랑의 원리대로 한국 서울 선교부의 선교사들과 회원들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가장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나는 한국 사람을 사랑하며, 그들이 재림하실 구세주를 맞을 준비를 돕기 위해 이 땅에 파송된 특별한 임무를 띤 선교사들도 사랑합니다. 지난 3년 동안 많은 발전이 이룩되었으며, 한국 성도들의 신앙과 헌신으로 이 축복받은 나라에 많은 경이로운 일과 기적이 계속 일어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경전을 통하여 회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 번 들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그분의 재림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 교회 회원들은 계속 이러한 회생을 치루어야 합니다.

지난 수년 동안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은 교회 회원들이 행하는 선교 사업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이러한 책임에 대하여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킬 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예언자께서 부여하신 임무를 완수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 몇 가지만을 제언해 드리겠습니다. 이 호남 스테이크 부장님께서서는 교회의 모든 역원이 적어도 1년에 두 가족을 교회로 인도함으로써 선교 사업을 행하도록 년초에 권고하였습니다. 새로운 구도자는 침례받기 위한 준비로 기본 교리를 배우는 것이 외에도 회원이 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도 한때 교회 회원이 되기를 갈망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처음으로 인도되어 다니는 동안 매우 친절하고 사랑으로 대해 주던 몇몇 사람들이 우정의 손길을 미친 것을 회상할 수 있으며,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도 그들의 따뜻한 마음씨와 사랑덕분이었음을 확신합니다.

교회 지도자는 회원들을 위해 봉사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지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는다는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 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에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봉사자가 되라고 명하셨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큰 기쁨을 맛볼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한국 서울 선교부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한국 회원들과 선교사들을 위해 봉사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가 겪은 가장 값진 경험이었으며,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느끼지 못한 큰 기쁨을 맛보았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있는 교회의 앞날에 큰 성공과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서울 스테이크의 이 호남 스테이크 부장님과 모든 훌륭한 직원들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사귄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충실한 종들이며, 나는 이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선교부장단의 일원으로 나를 도와 주신 훌륭한 형제님께 감사드리며, 이 선교부에서 나와 다른 회원들을 위하여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으신 분들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한국 부산 선교부 한 인상 선교부장님께도 경의와 존경을 표합니다. 그분은 복음으로 맺어진 참된 형제로서 훌륭한 본보기를 보이셨습니다.

털 자매도 나와 함께, 우리가 한국에서 3년 동안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여러분이 보여 주신 친절과 사랑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하와이에 여행하실 기회가 있으면 잊지 않고 우리 집을 방문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우리의 깊은 사랑을 전하며 작별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알로하!

칠십인 제일 정원회 앨빈 알 다이어 장로 서거



고 앨빈 알 다이어 장로

지난 3월 6일 이른 아침, 칠십인 제일 정원회 일원인 다이어 장로가 74세를 일기로 자택에서 서거하였다.

1903년 1월 1일,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알 프렛 로버트 다이어 형제와 해리엇 월수 자매의 아들로 태어나 1927년 10월 2일 대제사 신권을 받았고, 1958년 10월 16일 십이사도 보조로 성별되었다.

55세 되던 해, 1967년 10월 5일 사도로 성임받아, 1968년 4월 6일부터 1970년 1월 18일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의 서거 때까지 대관장단 보좌를 역임했다. 그후 다시 십이사도 보조로서 봉사했다. 1976년 10월에 칠십인 제일 정원회 일원으로 부름받았다.

1960년부터 2년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유럽 선교부를 관리하기도 했다.

솔트레이크 신전에서 메이 엘리자벳 잭슨 자매와 결혼하여 슬하에 두 자녀와 일곱 명의 손자를 두고 있다.

다이어 장로의 장례식은 3월 9일, 템플스퀘어 어셈블리홀에서 태너 부대관장의 감리로 집행되었다.

부산 동래 지부 대회

지난 3월 20일 부산 선교부 산하 동래 지부는 "행함이 있는 신앙"이란 주제를 가지고 회원 및 구도자 1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부 대회를 가졌다.

3월 19일 토요일에 가진 청소년 활동의 밤은 청소년들의 연극 발표로 막을 내렸다. 이들은 무대 장치 및 조명, 음악이 훌륭하게 조화를 이룬 훌륭한 연극을 공연하여 갈채를 받았다. 동래 지부에는 현재 지부장에 이 종업 형제, 제1보좌에 김 종덕 형제, 제2보좌에 정 영철 형제가 수고하고 있다.

지부 연극제에 출연했던 동래 지부 회원들



서울 제7와드 기공식 갖다

서울 제7와드는 지난 3월 22일, 관악구 노량진 2동에 위치한 신축 부지에서 약 70여명의 성도가 참석한 가운데 와드 신축 기공식을 가졌다.

이날 기공식에는 칠십인 제일 정원회 일원으로 극동 지역을 담당하고 계신 애드니 와이 고마쯔 장로와 이 호남 스테이크 부장 및 지역 지도자와 7와드 성도들이 참석하였다.

560평의 대지 위에 1차로 198평 규모의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기공식에서 첫 삽을 뜨는 지도자들, 우로부터 김 창신 부장, 이 호남 스테이크 부장, 고마쯔 장로, 최 목환 부장, 서 회철 형제, 구 중식 형제, 최 규열 감독,



교회 및 지역 소식

서울 스테이크 대회

지난 4월 16, 17일 양일에 걸쳐 시온의 서울 스테이크 대회가 개최되었다.

스테이크 부장의 감리로 스테이크 신권 역원회와 스테이크 대회 역원회는 16일(토요일) 제2와드에서, 일반 총회는 17일(일요일) 시민 회관 별관에서 개최되었다.

스테이크 신권 역원회에서 역원들은 장로 및 수련 장로의 활동 촉진 및 강화와 "신권 정원회의 강화"에 관한 필름스트립을 보고 최 육환 부장의 말씀을 들었다.

스테이크 신권 역원회에 이어서 열린 스테이크 대회에서는 "가족의 기능"이라는 주제로 3형제의 간증을 들었고, 끝으로 이 호남 스테이크 부장으로부터 가족 기록 작성의 중요성에 관한 말씀을 들었다.

18일 오전 9시 30분 시민 회관 별관에서 개최된 일반 총회는 스테이크 산하의 와드와 지부, 서울 선교부 산하의 인천 지부, 성남 지부, 화곡 지부, 면목 지부, 잠실 지부의 성도들이 참석하였다.

일반 총회에서 성도들은 최 동헌 상계 지부장, 최 육환 부장, 김 창선 부장, 전 종철 부선교부장(서울 선교부장 제2보좌), 이 호남 스테이크 부장의 말씀을 들었다.

최 동헌 지부장은 "아들을 통해 새롭게 들은 회복된 복음의 메시지를 주저함이 없이 받아들이고 즉시 이를 가족과 친지 및 이웃에 나누어 주기 위하여 노력했다"고 말했고, 최 육환 부장은 "우리는 교회 표준에 따라야 하고 자립과 자존의 정신으로 모범 역원에 대한 지지를 하는 신권 지도자들(위)과 성도들(아래)



을 보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권고하였으며, 김 창선 부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말씀을 들려주었고, 전 종철 부선교부장은 "모든 일에서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 종교는 우리에게 기쁨과 승영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했으며, 마지막으로 이 호남 스테이크 부장은 "그리스도와 나와야의 관계를 확립한 사람은 이웃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으며, 그러한 희생을 통해 가장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다"고 대회 말씀을 결론지었다.

일반 총회에는 1,500여명의 성도가 참석했으며, 이번 대회를 통해 대제사 1명, 칠십인 1명, 장로 22명이 지지되었다.

대구 지방 대회

지난 3월 19, 20일 양일간에 걸쳐 대구 지방 대회가 개최되었다. "개인 및 가족 예비 프로그램"이란 주제로 19일에 열린 역원회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주님으로부터 온 프로그램이며 이를 실천할 때 커다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20일 한 인상 선교부장의 감리하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준비함"이라는 주제로 열린 일반 총회에는 대구 중앙 지부, 서대구 지부, 남대구 지부, 구미 지부, 울산 지부, 포항 지부와 경주 지역 등지에서 270여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이 대회에서 한 인상 선교부장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게 되어야 하므로 인간은 자신의 생애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실천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교회의 피어 프로그램 즉 계획, 실천, 평가, 개선 프로그램은 승영의 열쇠이므로 모든 성도는 가정 예비 프로그램에도 이 원리를 적용하여 바로 지금부터라도 실천하자"고 강조하였다.

대구 지방대회에서 말씀하시는 한 인상 부산 선교부장과 대구 지방부 성도들



서울경제신문에 교회가 소개되다

지난 4월 12일자 서울경제신문에 실린 교회 소개 기사를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사회 곳곳에서 중후자의 인공... (right margin tex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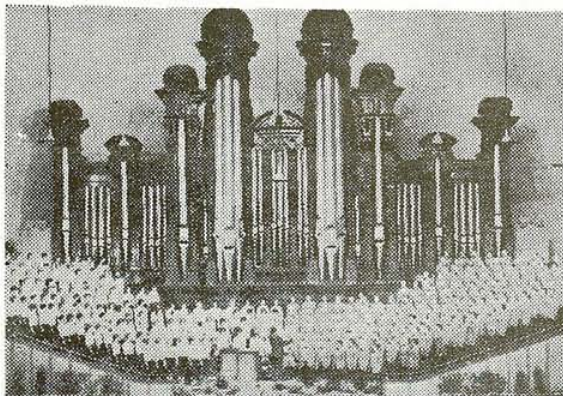
지난달 2일부터 24일까지... (main body text, top part)

家庭을 地上의 天國으로

물몬敎의 信仰과 生活

이런... (text on the right side of the article)

의... (main body text, middle part)



세계적으로 유명한 물몬 테버나클을 唱.

月曜日 家庭의 밤 모임

1830년 美서 出帆 全世界에 信徒 4백만 自立 自助 勤勉 실천 모토

가정의 밤... (right side text, bottom part)

가정의 밤... (left side text, bottom part)

未白報徒 예수 그리스도 教會전경